

광주 세탁기 日자위대 간다

순천 출신 재일경영인 장영식 회장 계약 따내

대우일렉 380대 이달중 납품…타이어도 추진

광주에서 만든 대우 클라쎄 세탁기 가 한국산 가전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에 납품된다.

이같은 결실을 이끌어낸 주인공은 순천 출신의 재일 경영인 장영식(43) 회장. 장 회장은 일본 정부기관에 가전제품 등의 납품과 해외 수출을 하는 유동업체인 (주)영산을 경영하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 5일 방한해 “지난 달 자위대가 발주한 세탁기 380대(1천330만엔어치)에 대한 입찰에 한국산 세탁기를 넣는 조건으로 응찰해 최종 계약을 따냈다”며 “자위대에 한국산 제품이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탁기는 한국의 대우전자

제품으로 이번 달 내로 모두 자위대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은 “이번 계약 성사를 위해 지난 7년간 노력을 해왔다”며 “한국 상품이 처음으로 ‘일본 제품과 동등 상품’으로 인정돼 자위대 납품의 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위대 납품은 일본 제품이 아니면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을 정도로 어렵다”며 “또 하나의 성과라면 이번 계약으로 자위대로부터 한국산을 납품해도 된다는 ‘입찰인증’을 받았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대우 세탁기는 광주시 광산구 하남 산단의 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공장에서만 생산되고 있어, 지역 경제에

에서는 경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영산은 정부기관과 자위대 등에 일본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미국·홍콩 등에 해외 수출을 해 연간 134억엔(1천5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회사는 한국산 타이어도 자위대에 납품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순천대 기계설계공학과를 졸업한 장 회장은 1993년 단돈 300만원을 쥐고 일본으로 건너가 가전제품 유통업과 무역업, 도쿄·오사카·벤텐 등 일본 주요도시 7곳에 ‘에이산 면세점’을 운영, 면세점업계에서 라ックス, 이마루 등 일본업체를 제치고 매출액 1위를 달리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아시아나항공 ‘수송 신기록’

1월 여객수송 87만명 사상 최고

지난해 2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 아시아나항공이 올 들어 각종 수송기록을 갈아치우며 사상 최고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 1월에 총 87만6천여명을 수송해 창사 이래 최고의 월간 여객수송 실적을 올렸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최고 월간 기록인 3만4천명을 실어넘겼다.

비수기에 해당하는 3월에도 실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3월 예상승객은 총 83만2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화물 부문도 지난해 4분기 이후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1월과 2월은 화물 비수기에 해당하지만, 올 1월에는 5만5천t, 2월에는 5만2천t을 수송했다. 아시아나의 실적이 올 들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짐체웠던 여객수요가 살아나고 대기업의 수출물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LH ‘실버사원’ 모집 11대 1 경쟁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실버사원(기간제 근로자)을 모집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00명 모집에 2천205명이 신청해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광주의 경우 124명 채용에 1천868명이 응시, 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남구·서구·동구는 27명을 뽑는

데 863명이나 끌려 31.9대 1로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전남은 76명 모집에 337명이 신청해 4.4대 1을 나타냈다. LH는 8일부터 서류전형 평가 후 23일 최종 합격자를 선정, LH 홈페이지(www.lh.or.kr)와 지역본부 게시판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실버사원은 다음 달부터 6개월 간 현 거주지 인근 LH 임대아파트 단지 및 광역관리센터 등에 배치된다. 이들은 주 5일, 1일 4시간씩 근무하며 매달 50만원 이내의 급여를 받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기술원 연구원 2명

‘녹색기술 포럼’ 참가

광주 첨단지구에 위치한 한국광기술원(원장 유은영)은 8일부터 10일 까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2010 범부처 녹색기술 포럼’에 참가한다.

이번 포럼에서 전성관·김정현 책임연구원은 ‘자외선 LED 칩 개발’과 ‘LED 광원을 이용한 해충 방제 시스템 개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데 863명이나 끌려 31.9대 1로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전남은 76명 모집에 337명이 신청해 4.4대 1을 나타냈다. LH는 8일부터 서류전형 평가 후 23일 최종 합격자를 선정, LH 홈페이지(www.lh.or.kr)와 지역본부 게시판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실버사원은 다음 달부터 6개월 간 현 거주지 인근 LH 임대아파트 단지 및 광역관리센터 등에 배치된다. 이들은 주 5일, 1일 4시간씩 근무하며 매달 50만원 이내의 급여를 받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원 모집

당사는 부동산 중개, 분양, 경·공매 개발 전문회사로서 사세 확장에 따라 친밀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인원	지원자격	비고
경리	여 0명	* 초보자 및 경험자	월급
개발	남,여 0명	* 관련전공과와 이수자 * 유 경험자	기본급+수당
아파트	여 00명	* 유 경험자	여 실장
토지	남,여 00명	* 초보자 및 경험자	
상가	남,여 00명	* 초보자 및 경험자	분양 및 중개
빌딩	남,여 00명	* 초보자 및 경험자 및 회사관련업무 경험자 우대	전직금융기관 긴부 및 회사관련업무 경험자 우대
첨단지구	37억원	3,300만원	85억원
동립지구	7억원	1,700만원	32억원
상무지구	100억원	5,000만원	200억원
상무지구	26억	6,500만원	100억원
첨단지구	4억	1,700만원	28억원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유)코리아랜드

대표전화 959-1033, 010-7723-1033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483번지

금호건설 잇단 해외수주 성공

베트남 ‘타임즈 스퀘어’ 이어 하노이 등서 4건 공사 수주

올 ‘해외수주 1조 클럽’ 가입… 조기 경영정상화 청신호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건설이 잇따라 해외수주를 성공시키면서 조기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베

트남에서 ‘타임즈 스퀘어’(Times Square) 등 두 건의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데 이어 이달 중 하노이에서 스타시티 레반트, 노보텔 하노이 등 세 건의 사업 수주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낭보에 힘 입어 금호건설은 올해 해외사업 수주 목표를 8천억원에서 1조원 대로 상향조정해 ‘해외 수주 1조 클럽’을 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금호건설은 지난 2월 초 1억100만 달러의 호텔·아파트·오피스 등으로 구성된 고급 복합 건물인 ‘타임즈 스퀘어’를 수주했다. 또 지난달 말에도 경박 도시개발 주식회사(Kinh Bac Urban Development Joint Stock

Corp)와 약 5천만 달러 규모의 고급 복합 건물 ‘꽁박 하노이 타워’의 LOI(낙찰의향서)를 체결해 최종 공사권 약 확정을 앞두고 있다.

이달에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추진 중인 ‘스타시티 레반트’와 ‘노보텔 하노이’ 등 건축사업 3건에 대해 LOI를 체결할 예정이어서, 금호건설은 1분기에만 베트남에서 5건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워크아웃 실사 기간 종료로 수주는 흔치 않은 일로, 금호건설의 조기 경영정상화에 큰 힘이 될 것”고 반색했다.

또 잇따른 해외 수주 성공으로 위크아웃 신청 이후 불거져온 시장의 부정적 시작을 불식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건설의 이같은 수주에는 지난해 준공한 해외 시장인 1군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플라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건설은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현장 펜스 디자인과 함께 펜스 주위를 조경으로 꾸며 친환경 거리를 조성했고, 현지에서 최초로 세黝기를 사용해 선진 건설 문화를 정착시켰다. 이밖에도 베트남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과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해고철회’ 호소

금호타이어 정리해고 예정자 가족들이 7일 광주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에서 대책위를 결성한 뒤 ‘해고 철회’ 등을 호소하고 있다.

/나명숙기자 mnja@kwangju.co.kr

채권단, 대우건설 FI와 협상 사실상 타결

이달중 금호산업 구조조정 계획 마련

대우건설 재무직 투자자들(FI)과 채권단간 협상이 사실상 타결돼 금호산업 구조조정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금호산업에 대한 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상화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채권단은 이르면 이달 말쯤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권단이 금호산업 워크아웃에 속도를 내려는 것은 최근 2개월간 채권단과 대치해오던 대우건설 FI들이 채권단의 방안을 수용해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기 때문이다.

러 워크아웃 플랜을 짜기로 했다”고 말했다.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기업구조조정 전략적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어음(CP) 등을 보유한 비협약 채권자들과 재무조정 등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인수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PEF 조성을 위해 이달 중에 전략적 투자자 등 투자자를 모집해 함께 실사를 진행, 이르면 6월까지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은은 관계자는 “대우건설 인수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몇 군데 있는 만큼 인수 작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이르면 8월까지 대우건설 FI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모든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최근 2개월간 대우건설 재무직 투자자들과 협상하는 데에 대한 협의는 대우건설 인수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몇 군데 있는 만큼 인수 작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hwnews.co.kr

로또복권		(제379회)
당첨 번호	수자	
6	10 22 31 35 40	19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598,999,78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26,274,645
3	5개 숫자 일치	1,390,090
4	4개 숫자 일치	60,096
5	3개 숫자 일치	5,000

코스피지수	1,634.57 (+39.99)
코스닥지수	511.28 (+4.77)
금리 (국고채 3년)	4.10%
원·달러 환율	1,140.10원 (-20.00)